

농어촌공사 합천지사, 24년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집중 홍보 활동

김상준기자 | 승인 2024.09.11 17:47 | 10면

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합천 초계면 초계시장에서 올해 신규사업인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. /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(지사장 박인식)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합천군 초계면 초계시장에서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.

2024년부터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'농지이양 은퇴직불제'는 고령농업인(65~84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매도 이양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,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가 대상이다.

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다르며, 농지를 바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을,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에 매도하는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에는 1ha당 월 40만원이 지급된다.

‘농지이양 은퇴직불제’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대표전화(1577-7770), 농지은행포털(www.fbo.or.kr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.

한편 박인식 지사장은 “고령 농업인에게 영농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고,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영농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농업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 김상준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김상준기자